완주마을이야기 since 2012 제96호



2020년 8월호

100세시대 동반자

완주군보건소가 삼봉지구 시대를 시작했다. 삼봉 공공주택지구로 신축 이전한 뒤 지난 7월 20일부터 본격적인 보건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일반진료실과 구강보건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증진사무소 등의 시설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음압컨테이너형 선별진료소를 구축했다. 주민건강의 제 일선에 있는 완주군보건소를 다녀왔다.

관련 기사 2~7면

사진설명: 삼봉 공공주택지구로 신축·이전한 완주군보건소는 지난 7월 20일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보건서비스를 시작했다.

100세시대 동반자 /삼봉시대 연 완주보건소

치아관리서 자살예방까지 주민건강 제 일선



완주보건소가 삼봉지구 시대를 시작했다. 삼봉 공공주택지구로 신축 이전해 지난 7월 20일부터 보건서비스에 들어간 완주보건소는 일반진료실을 포함해 구강보건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건강증진센터 등의 시설을 갖췄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음압컨테이너형 선별진료소를 구축했다.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암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 의료비사업, 의료기관 인허가, 보건증 검사와 발급 등 보건소의 업무는 다양하다. 금연부터 맞춤형 신체 활동 증진에 이르기까지 주민건강을 위해 제 일선에서 뛰고 있는 보건소를 둘러보았다.

삼봉지구로 신축 이전… 의료비지원 등 다양한 업무 처리

통합건강증진사무소

금연클리닉부터 영양상태 개선, 개인별 운동처방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펼치고 있다.

▶ 금연사업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무료제공, 니코틴 소변검사, 폐활량 검사 등을 한다. 6개월 금연 성공자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한다. 그 외 이동 금연클리닉, 금연교육 등도 진행한다.

▶ 절주교육

성인, 직장인, 군인, 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한다. 음주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교육한다.

▶ 신체활동 증진사업

유아동, 청소년, 직장인, 노인 등 맞춤형 사업을 펼친다. 신청을 한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놀이형 신체활동 교육을 하고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를 대상으로 운동처방과 상담, 흡연예방 교육 등을 펼친다. 체성분 검사나 운동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보건소에서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다.

▶ 영양사업

최적의 영양관리 및 식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 성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각 대상을 나눠 맞춤형 영양사업을 펼친다. 영양관리 교육 및 상담, 식생활실천 교육 및 조리 체험활동 등을 한다.

▶ 영양플러스사업

영양상태 취약자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한다.

▶ 아토피예방관리사업

미취학 아동 건강놀이터, 해피맘 파워맘 임산부 교실, 아토피 환아 가족 및 질환자 자조모임 운영, 아토피 · 천식 안심학교 운영 등 아토피 질환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강보건센터

구강보건센터는 지역주민들에게 구강건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기존의 구강보건실을 확대 · 전환하여 치과진료부터 교육 및 다양한 장비를 이용한 개별 구강검사가 가능하고 올바른 구강관리법을 교육받을 수 있다. 이밖에 치과이동진료차 운영, 치아홈메우기 사업, 특수(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으뜸완주 잇몸만들기 사업, 저소득층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 다양한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치과이동진료차 운영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치과이동차량 순회 진료를 한다. 예방사업 뿐만 아니라 기본 치과진료 및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의치 및 치주질환 관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을 시행한다.

▶ 치아홈메우기 사업

영구치 맹출시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아동들의 교합면 홈을 메워주는 사업으로 치아우식증이 생기지 않은 건전 영구치를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들에게 시행한다.

▶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 양치교실 운영

학교 내에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을 통해 예방서비스 위주의 계속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생활공간에서의 구강관리 습관을 유도하여 아동의 구강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봉동초, 삼례초, 푸른학교, 비봉초에 설치되어 있다.

▶ 으뜸완주 잇몸만들기 치주치료 · 예방교실

30세 이상 완주군민(치주질환자, 만성질환자 우선)을 대상으로 예약을 통해 개별 구강검진 및 1:1 맞춤형 치주관리 교육, 전문가 잇솔질 관리, 스케일링 · 불소 도포, 전후 평가 및 지속적인 정기관리를 한다.

▶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사업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를 대상으로 전부의치 · 부분의치 시술비 지원, 사후관리비 지급 등을 한다. 노인의치 시술지원신청서, 신분증, 의료급여증명 등이 필요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

2012년 4월에 문을 연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산의료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상담, 교육, 사례관리, 치료비 지원, 집단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과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봉동에 위치했으나 최근 완주군보건소 신축 건물로 이전했다.

▶ 정신건강재활

정신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회복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자, 지역의 등록 정신장애인, 진단받지 않았으나 증상이 서비스 대상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라면 이용 가능하다.

▶ 정신건강증진

주민들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한다.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마음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치료와 관련 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 대상은 완주군에 거주하거나 관내 재학중인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 완주군 관내 초 · 중 · 고등학교 교사 및 학부모, 관내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및 정신의료기관이다.

▶ 자살예방

자살 생각으로 심리적 ·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완주군민, 완주군거주 우울 및 자살 고위험군, 또는 자살유족이다.

▶ 재난심리지원

코로나 19로 인해 생겨난 '감염병 스트레스'가 일상생활에서까지 정서적 어려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와 그 가족, 격리 경험자 등을 위한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심리지원과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완주군보건소, 어떤시설 들어섰나

문의전화 063-290-3003~4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8로 10-10

❶ 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 등 각종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다. 접종비용은 약품에 따라 유료와 무료로 나뉘며 필요에 따라 접종비를 지원한다.

행복나눔실
육아용품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 깨끗한 물건과 원하는 물건을 무료로 교환할 수 있다. 수시로 분유, 기저귀 등 아기용품을 기부 받고 있다.

수유실
산모가 자유롭게 수유할 수 있도록 구비한 공간이다.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으면 젖병소독기와 아기침대, 기저귀 교환대 등 관련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처치실
상처나 헌데를 치료하거나 급하게 응급 치료를 받는 곳이다.

진료실
일반 진료를 받는 곳이다.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통증완화를 위한 찜질 등 전반적인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활운동실
작업치료사가 뇌경색, 뇌출혈로 기타 질병과 사고로 인해 거동을 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반복적인 운동 자극을 주어 재활을 돕는다.

건강증진상담실
환자에게 체형과 질병을 고려한 맞춤형 운동을 처방한다, 이곳에서 처방을 받은 후에 운동프로그램실에서 운동을 하게 된다.

운동프로그램실
전체 건강검진이나 체력측정을 통해서 부족한 운동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다.

건강증진교육실
건강증진프로그램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현재 이동금연클리닉,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의과진료실
한의학 처방과 진료하는 곳으로 침,뜸,부항 등 진단기를 이용한 시술과 투약, 한방건강상담, 한방금연침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한의학건강증진실
한방(한의학)과 관련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하는 공간이다. 현재 한의약중풍예방교실, 관절튼튼예방교실, 한방여성건강교실, 장애인 · 독거노인을 위한 한의약 가정방문사업, 한의약육아교실, 한의약 알러지 · 비염 예방교실, 한의약 중년여성 요실금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임상검사실
일반 병원에서 하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 당뇨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채담실
결핵관리실에서 운영하며 결핵환자를 집중 관리한다. 결핵환자는 객담(가래) 채취해 검사하게 되는데 이때 다른 환자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객담 검사는 무료로 진행된다.

방사선실
기본적인 결핵검사가 진행되는 곳으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받기위해 폐 사진을 찍는 곳이다.

❷ 보건소 2층

구강보건센터
구강보건센터, 구강보건실과 치과진료실이 한 공간에 위치해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❸ 완주군치매안심센터

〈1층〉

상담실
방문자가 진료실로 이동하기 전 1차 문진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진단검사가 가능한 날이 정해져 있고 검사시간이 50여분 소요되기 때문에 예약제로 운영된다.

진료실
상담실에서 1차 문진 후 방문자의 본격적인 진료를 진행한다.

가족카페
방문자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커피와 차, 책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2층〉

프로그램실 1
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평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주로 운동, 원예, 미술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실 2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이다.

❹ 선별진료소







100세시대 동반자 /만능해결소 승치보건진료소

아이들은 놀이터 어른들은 사랑방





승치보건진료소에서는 만성질환자들의 혈당검사는 물론 약처방도 가능하다.

보건서비스는 기본 잔돈교환이나 전화민원까지 척척

흐린 오후, 굽이지고 다소 험한 도로를 따라 화산면에 위치한 승치보건진료소에 도착했다.

1980년대에 건립한 승치보건진료소는 2016년 11월 승치마을에서 기증한 땅에 지금의 건물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깔끔하고 쾌적한 공간에 인바디(체성분 분석기)와 혈압측정기, 운동기구, 안마기, 샤워실 등 각종 서비스 시설을 갖췄다.

1980년도 농어촌의료법에 근거하여 1차 진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진료소가 생겼다.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보기 위해 주민들과 보건소의 다리가 되어주는 게 바로 보건진료소의 역할이다.
보건진료소가 가진 특이점은 간호사면허와 조산사면허가 있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채용하고 24주간 보건소 사업이나 의료과정 교육을 거치면 약품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곳의 진료소장 조혜란(29) 씨는 4년 차로 승치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한 지 1년이 되었다. 늘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을 덕분에 혜란씨는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 “농번기에 맨손으로 낫을 들고 일을 하시다가 다쳐서 오는 어르신이 많아요. 워낙 외지고 시골이라 집에 기본 응급약품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작은 찰과상부터 만성질환, 환절기 질환까지 저마다 보건소를 찾는 이유도 다양한데 지리적으로 소외된 마을 주민들에게 승치보건진료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다.
마침 보건소를 찾은 마을주민 국정오(60)씨는 “교통이 불편해서 아플 때 병원에 자주 못 가는데 보건진료소가 있어서 아무 때나 들를 수 있어서 편리해요. 우리 선생님이 개인 상담도 해주시고 참 좋아요.”라고 말했다.

마을에서 보건진료소는 진료받는 곳 외에 만능해결사로 통한다. “어르신들이 글을 모르셔서 건강통지서가 집으로 오면 제가 해석을 해드리기도 해요.” 혜란 씨가 보건진료소의 문을 열면 잔돈을 바꾸거나 문자를 보내고 싶을 때, 핸드폰이 꺼졌을 때처럼 사소한 일에서부터 개인적인 상담까지 어르신들이 수시로 찾는다. 진료소는 아이들에게는 놀이터, 어르신들에게는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이정화(71) 어르신은 “가까워서 너무 좋지요. 오늘 혈압이랑 당뇨, 고지혈증약 받으러 왔어요.”라며 약봉지를 품에 안고 돌아갔다. 김민설영(44) 씨는 “오늘 전지 작업하다가 벌에 쏘였는데 화산보건지소가 닫아서 여기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와봤더니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좋네요.(웃음)”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도 마을 어르신들의 말벗이자 든든한 만능해결사로서 보건소를 지킨다. “농어촌 사람들에게 보건진료소란 도시 사람들이 느끼는 의료기관의 의미와는 아주 달라요. 단순히 의료와 보건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이웃 같은 존재랄까요.”

100세시대 동반자 /완주군보건소 선별진료소

전국 최초 음압컨테이너 2개동 구축 '휴일없이 운영'

코로나 전파 막기 오늘도 '최선'







이재연 감염병관리팀장



완주군 선별진료소는 접수와 검체채취 모두 비접촉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7월 29일 오전, 완주군보건소 앞. 빨간 컨테이너 건물의 완주군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있다. 이곳은 전국 최초로 진료동과 검사동 등 2개 동으로 음압컨테이너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압컨테이너는 의료진들의 간편한 보호복 착용과 감염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음압시설은 시설 안의 기압을 외부보다 낮춰 오염된 공기 등을 해파필터를 통해 살균 설계된 것을 말한다. 현재 선별진료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코로나19 비상상황실은 오후 10시까지 상시 근무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총괄 및 역학조사를 맡고 있는 감염병관리팀 이재연 팀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곳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궁금하다.

해외입국자,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사람, 코로나19 발생지역에 방문한 주민, 요양시설 같은 고위험군 집단, 학교의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유증상자들이 찾아온다. 해외입국자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북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남원으로 이송되어 검사를 진행한다. 이때 양성인 경우에만 자가 격리가 이뤄지며, 자가 격리지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린다. 이후에 자가격리 키트(체온계, 보건용마스크, 의료용폐기물 봉투등)와 응급 식품 세트 등을 지원한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

주민 누구나 검사받으러 올 수는 있다. 먼저 의료진이 상담을 한 후에 검사여부를 진단한다. 이때 검사가 필요할 시 검체 채취실로 이동 후 면봉으로 상기도와 하기도 등의 검체를 채취를 하게 된다. 검체 채취실은 의료진과 환자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단벽을 설치했다.

타 지역에 비해 선별진료소 시설이 잘 구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컨테이너형 선별진료소는 진료지원 시설 1동과 검체 채취시설, 흉부방사선 촬영이 가능한 검사시설 1동으로 이뤄져 있다. 이동이 가능하고 냉난방이 설치되어 있으며 반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음압장비와 냉난방기, 이동형 X-레이 외에 의료진과 방문객이 분리된 아크릴 칸막이 등이 설치돼 외부환경에 자유로우며 방문자와 의료진의 동선 분리로 교차 감염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최근 우석대학교 확진자 발생 당시, 현장 이야기가 궁금하다.

그때 선별진료소에 투입된 인원이 낮에는 스무명, 밤에는 열 명이었다. 확진자가 방문했던 코인노래방, 카페 등에 가서 CCTV조사, 매출전표 확인 등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역학조사 이후, 접촉자들이 검사를 받기 시작했고 첫째 날 330명을 비롯해 총 500여 명이 검사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에 임하는지 궁금하다.

검사할 때마다 '제발 양성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함께 발 빠른 대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보건소 의약관리팀의 코로나19 대처법

병원시설 방역체계 일주일 3회 순회점검



완주보건소 의약관리팀이 비접촉 면회를 시연해 보고 있다.

비 내리는 오후, 신축 이전한 완주군보건소를 찾았다. 보건소에 소속된 8개 팀 중에서 의약관리팀을 만나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완주군보건소 의약관리팀은 병·의원 인허가 및 관내 103개소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비롯해 약국·약품 유통업·의료업소·의료기기 판매업소(이하 의약업소 등) 인허가 및 의약업소 등 161개소 지도점검, 관내 의료기관·소방서·공공기관의 구급차 · 자동심장충격기 및 의료용 헬기 인계점 등 250여 개소의 응급의료체계 관리, 국가예방접종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연정 의약관리팀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병원시설 방역체계에 더욱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약관리팀은 입원 시설 중 모범시설로 꼽힌 요양병원으로 점검을 나섰다. 이곳은 비접촉 면회 등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층마다 환자 전용 스마트폰을 비치해 영상통화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해당 병원의 간호부장은 "방문자 명단 작성, 발열 검사, 손 소독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날마다 점검 사항들을 보건소에 제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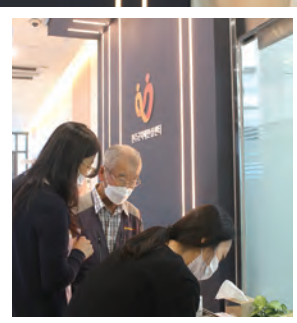
의약관리팀이 관리하는 병·의원은 하루 2회 방역을 하고 있으며 방문자 접촉 여부 및 환자 변동사항을 매일 보고한다.

이 팀장은 "일주일에 세 번씩 순회를 돌고 있어 바쁘지만 방역체계가 잘 유지되는 걸 보면 뿌듯하다. "코로나19 증상이 독감 증세와 유사하여 올해에는 인플루엔자 접종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완주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조기선별검사부터 치매진단까지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100세 시대 동반자 / 완주군치매안심센터

치매 진단부터 가족지원까지 통합관리

조기검사 - 병원치료 연계까지
센터내 보호 쉼터 운영 예정도

7월 30일 오후 완주군치매안심센터 상담실. 이정임(74·삼례) 씨는 방금 치매진단검사에 이어 의사 상담까지 마무리했다. 결과는 '이상없음'. 정임씨는 "집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남편과 함께 왔다. 우리 나이가 되면 치매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며 "마을에 홍보를 나온 센터 직원들 덕분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한테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나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완주군치매안심센터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했다. 지난 2017년 12월 소양면 옛 면사무소 자리에 임시개소를 한 후 이번 보건소 신축이전과 함께 새롭게 문을 연 것이다. 2층으로 구성된 건물에는 검사실, 상담실을 비롯해 프로그램실, 쉼터 등 다양하고 편리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완주군치매안심센터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완주군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2,592명이다. 무엇보다 치매에 있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법. 센터에서는 간단한 절차로 이뤄지는 치매조기 선별검사를 비롯해 정밀하게 진행되는 치매진단검사까지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인지 저하 결과가 나오면 완주와 전주 지역에 연계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다.

이날 완주에 사는 어머니를 모시고 온 한경미(52·전주)씨는 "어머니가 뇌혈관 수술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후 기억력이 조금씩 불안해 2년 전 완주군 보건소에서 치매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때는 치매가 아니라고 나왔지만 최근에 기억력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 하셔서 다시 한번 오게 됐다."며 "보건소에 전화를 하니 이곳에서 검사를 받고 다른 큰 병원과 연계도 가능하다며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다. 완주군에 이런 곳이 있어서 안심이 되고 굉장히 좋은 제도 같다."고 말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 뿐 아니라 인지향상 활동, 사례관리, 치매파트너 교육, 치매공공후견인 사업, 치매 가족 자조모임 지원 등 일반인과 치매 환자, 그리고 치매환자가족에 이르는 다양한 범주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도 한다. 만 60세 이상 완주군민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에 한해 월 3만원(연 36만 원)한도 내에서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하고, 기저귀, 방수매트, 식사용 앞치마, 미끄럼방지 양말, 약달력 등의 물품을 최대 1년간 제공한다.

지역특화사업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일정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반기에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만 75세 이상 취약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완주지역자활센터 생활지원사들과 함께 치매예방 프로그램, 치매조기검진, 치매친화적 안전환경 조성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센터 내 주간보호 쉼터도 운영 예정에 있다. 낮 시간동안 경증치매환자를 보호해 치매증상이 악화되는 걸 방지하고 기능 향상을 돕기 위한 것이다. 8월 기준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하루에 3시간씩 센터에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완주치매안심센터 김소형 치매관리 팀장은 "완주군은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센터를 통해 치매와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조금이라도 걱정이 된다면 미리 조기검진하고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향상프로그램에 참여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홈페이지** wanju.nid.or.kr
- **문의 전화** 063-290-4373

완주보건소 '슬기로운 이용방법'

완주군보건소에 가면 기본적인 내과 진료와 함께 치과, 한방 진료가 가능하며 각종 예방접종도 할 수 있다. 특히 예방접종은 대상과 종목에 따라 무료로 가능한 항목이 있으니 참고하자.

보건소 진료과목

일반 진료

감기 등 일반질환에 대한 1차 진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진료
진료 및 투약상담
· **진료비**(처방전 발급): 500원
· **물리치료**: 1,600원
· **준비물**: 신분증
☎ 290-3008~9

치과 진료

· **진료요일**: 월, 화, 목, 금
(수요일은 예방진료사업 순회)
· **발치**
· **치주병**(잇몸병) **치료**
· **신경치료**
· **교합조정치료**
☎ 290-3012

한방 진료

· **진료 및 한방약 처방**
(보험급여제에 한함)
· **침, 뜸 진단기를 이용한 시술**
· **한방건강상담**

☎ 290-3056

예방접종 목록

구 분	접종 대상	장 소	접종비용
BCG(피내),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 DTap-IPV(혼합백신), 뇌수막염, DTap-IPV/Hib(혼합백신), 소아폐구균, 수두, MMR(홍역/볼거리/풍진), Td(파상풍/디프테리아), 일본뇌염(생백신), 일본뇌염(사백신), A형간염,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만12세 이하(17종)	보건(지)소	무료
		위탁의료기관(전국)	무료(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어린이 인플루엔자	만18세 이하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무료
		위탁의료기관(전국)	무료(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어르신 폐렴구균	만62세 이상	보건(지)소	무료
		위탁의료기관(전국)	무료(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A형간염 예방접종	20~49세 (1999년~1970년생) 고위험군	보건소	무료
		위탁의료기관(전국)	무료(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어르신 인플루엔자	만65세 이상	보건(지)소	무료
		위탁의료기관(전국)	무료(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대상포진	55세 이상 완주군민	보건(지)소	유료
성인 인플루엔자	만19~61세 이하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유료
B형간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임신부 인플루엔자	고위험(4종)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무료 및 유료

완주보건소 셔틀버스 운행시간표

〈삼례 방면〉

행선지 회차		보건소 출발	청소년 수련관	주공 1차	농협	우성 아파트	대명 아파트	원해전	원후정	삼례역	방촌	문화 센터	농협	읍 사무소	청소년 수련관	상시경유지					보건소 도착
																남석전 슈퍼앞	신정 정류장	삼봉 주공			
																첫차경유지					
																월산	학동	정산	청등	원수계	
1	오전	8:55	9:02	9:05	9:07	9:09	9:10	9:12	9:15	9:17	9:18	9:19	9:21	9:22	9:23	9:27	9:28	9:29	9:31	9:34	9:40
2	오전	10:40	10:51	탑승시 경유	10:53	10:57	10:59	탑승시 경유	11:03	11:05	11:06	11:07	11:10	11:11	11:13	첫차 탑승시경유(10:40~10:50분사이)					11:20
																11:16	11:17	11:18			
3	오후	13:25	13:31	x	13:33	13:36	13:39	x	13:43	13:45	13:46	13:47	13:50	13:51	13:53	13:55	13:56	13:57			14:00
4	오후	15:00	15:06	x	15:08	15:10	15:12	x	15:15	15:17	15:18	15:19	15:21	15:22	15:23	15:25	15:26	15:28			15:30
5	오후	17:00	보건소 이용자 → 목적지까지 운행																		

〈둔산 방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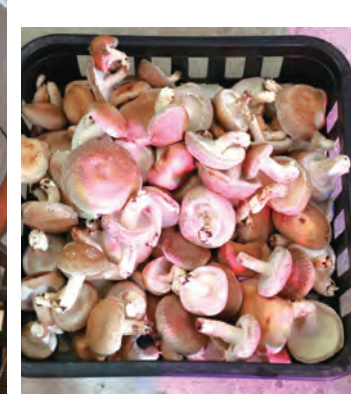
행선지/회차	보건소출발	센트럴 카운티 아파트	둔산 방범초소 앞	코아루 1차 아파트	보건소 도착
오전	9:50	9:58	10:00	10:02	10:10
오전	11:20	보건소 이용자 → 목적지까지 운행			

※ 문의사항: 290- 3008, 290-3015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원주아파트 버섯나라공동체 회원들이 지하에서 재배한 표고버섯을 수확하고 있다.



아파트 지하에서 표고버섯이 자라고 있어요

원주아파트 버섯나라공동체

LED - 환기시설로 스마트팜 조성
지난해 65kg 수확 수익금 후원도





원주아파트 지하에서 표고버섯들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7월 6일 오후, 용진 원주아파트 지하. 20평 남짓한 공간에 선반 위로 버섯 배지(종균)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이날 원주아파트 '버섯나라공동체' 회원들이 모여 올해 두 번째 버섯 수확에 나섰다. 회원 어르신들은 각자 구역을 나눠 바구니에 버섯을 차곡차곡 담았다. 이명숙(76)대표는 "지난해 총 수확량이 65kg이었는데 올해 첫 수확만 35kg이다. 앞으로를 생각하면 올해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다."며 웃었다.

원주아파트 버섯나라공동체는 아파트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2018년에 만들어진 공동체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원주아파트를 시작으로 이서 하늘가, 삼례 동원 아파트도 버섯재배 사업을 함께 이어오고 있다. 현재 각 아파트 지하공간에는 적정온도(15도)와 환기, 급수 조건을 맞췄고 LED등으로 버섯을 키우는 '작은 스마트팜' 이 조성되어 있다.

이날 모인 버섯나라공동체 회원들은 버섯 수확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든 이들은 능숙하게 버섯을 땄다. 최공임(81)어르신은 "선반에서 버섯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어깨도 아프고 힘들 때가 있지만 이렇게 버섯을 딸 때면 뿌듯하다. 이제 점점 노하우도 생기고 있어서 작년보다 더 많이 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버섯나라공동체에서는 표고버섯 수확을 마치고 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장터를 열어 판매하고 있다. 1,500g에 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주민들에게 인기가 좋다. 또 다른 인기 비결은 진한 버섯 향과 청결함이다. 김옥자(72)어르신은 "버섯농장에서 좋은 종자를 들여와서 더 맛있고 좋다. 버섯 키우는 방법도 교육받고 정성스레 키워낸 거다."고 말했다.

장터를 통해 버섯을 판매한 수익금은 연말에 주변 이웃에게 나누기도 한다. 주로 후원금으로 쓰이고 공동체 운영비로도 사용된다.

이명숙(76)공동체 대표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데 이렇게 버섯덕분에 사람들 만날 수 있어서 좋다. 회원들하고 돌아가면서 하루에 두 번씩 물주고 있는데 몇 시간만 지나도 금세 자라있는 걸 보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지난 2015년부터 '살맛나는 아파트르네상스'를 내걸고 다양한 아파트공동체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중에서 버섯재배 공동체는 별다른 일거리가 없는 어르신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소일거리 사업으로 시작했다.

담당자 지정숙 팀장은 "오래 된 아파트의 지하 유휴공간을 활용할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다 표고버섯 재배를 권장하게 된 것이 그 시작이다. 특히 올해는 완주지역 농가와 연계하면서 농가와 주민의 밀접도를 높였다. 농가는 주민들에게 버섯을 더 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교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섯 키우는 아파트공동체! 완주군 3개 아파트서 공동체 활동



완주군 아파트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아파트 지하공간에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공동체가 있다. 총 세 곳으로, 용진 원주아파트 '버섯나라', 삼례 동원아파트 '동행하우스', 이서 하늘가 아파트 '하늘가 이웃사촌' 공동체다. 이들은 직접 무농약으로 친환경 표고버섯을 키우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판매해 수익금을 이웃돕기에 동참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르네상스 사업 성과발표회 때 1111사회소통기금에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귀농인의집 공동텃밭에서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수미감자 수확이 한창이다.

“농사는 처음이라” 감자캐는 법도 배웠지요

귀농인의 집 공동텃밭 수확

올해 8세대 입주 다양한 교육 중

흐리고 더운 날씨의 평일 오전, 고산면 완주귀농귀촌지원센터 뒤편 공동 텃밭에서 감자수확이 한창이다. 지난 4월에 심은 수미감자를 비가 오기 전에 수확하는 것이다. 이렇게 캔 감자는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모아둔다.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감자가 실하다.

이날 감자 수확에 참여한 이들은 모두 완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들이다. 전국 각지에서 귀농을 준비하거나 경험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현재 ‘귀농인의 집’에 체류하며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다.

완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1년 단위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입교생을 선출한다. 올해 입주한 세대는 8세대이다.

밭에서 연신 수건으로 땀을 닦던 이재근(39) 씨는 “어제 저녁 한 뿌리를 캐서 다른 식구들이랑 먹어봤는데 맛있었다. 올해 농사가 잘 된 것 같다.”며 웃었다.

강희곤(49) 씨도 “교육받을 때, 잡초 뽑고 비닐 벗긴 다음에 감자를 캐야한다고 교육 받았다. 저희는 이게 다 처음이니까 이 자체가 다 교육이다. 직접 해보면서 보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서로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수확한 감자가 담긴 상자가 빠르게 하나 둘씩 쌓여간다.





완주 체류형 농업창원지원센터 입교생들에게 나눠진 개인 텃밭은 자신이 원하는 작물을 심을 수 있다.

어디선가 “여기 우리 국가자격증 시험 합격한 사람 있어요.”라고 외치는 소리에 유독 쑥스러워하는 사람이 보인다. 최근 종자기능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재근씨다. 열심히 공부한 보람을 느낀다는 그는 “서울에서 완주로 내려와서 체류형 귀농귀촌센터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귀농해보니 참 좋다. 혼자 맨땅에 1년 정도는 고구마나 땅콩을 심었는데 원래 딸기 농사를 짓고 싶어서 내려온 거라 7월에 제 이름으로 하우스 2개를 운영해볼 생각이다. 이미 맹지를 소개받았다.(웃음)”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김희정(37)씨도 아이들의 교육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완주로 내려오기로 결심했다. 결심이 서자 남편과 상의 후 아이들과 먼저 내려와 귀농인의 집에 입주한 이후 넷째를 가졌다고. 귀농인의 집은 연이은 경사가 겹치면서 한껏 축제분위기다.

공동텃밭 바로 옆에 위치한 땅은 각 세대마다 배부된 개인 텃밭이다. 개인 텃밭에 심고 싶은 작물을 마음껏 심을 수 있다. 가지, 깨, 고구마, 브로콜리, 상추, 고추 등 작물 종류도 다양하다.

식구 중 막내인 이우수(28) 씨는 “작년에 전국귀농귀촌박람회에 갔는데 그중 완주가 기억에 남았었다. 완주가 정책도 좋고 집도 좋았다. 여기(귀농인의 집)에 있으면서 텃밭도 길러보고 센터에서 교육도 받고 농가 탐방도 다녔다.”며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말했다.

비록 육체적 노동에 힘들지라도 혼자가 아닌 함께여서 즐겁다. 감자 수확을 마친 뒤에는 개인 텃밭에서 기른 작물도 수확할 예정이다. 땀흘리며 고생한 만큼 영양보충을 위해 오늘 저녁은 고기파티다.

[일단, 페니미즘]이 읽은 책들



내 안의 성차별주의와 마주하다

문화다양성 무지개다리

④편_일단, 페미니즘

지역주민들 매주 모여
페미니즘 낭독

처음엔
맘맞는 이 서넛으로 시작
지금은 열댓명으로 늘어

낭독, 강연, 상영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페미니즘에 접근

페미니즘, 켜켜이 쌓인 오해들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라는 의문에 대해 사람들이 공포나 환상에 비롯하지 않은 해답을 얻기 바랐다. 사람들이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끝내려는 운동이라는 간결한 정의를 읽고 또 읽어서 그 의미를 깨우치기를 바랐다.

- 벨 훅스『모두를 위한 페미니즘』(문학동네) 중에서 -

사회운동가이자 페미니스트인 벨 훅스의 말처럼 사실 페미니즘은 '여성'만을 위한 운동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양한 범주와 갈래의 흐름으로 인해 이해가 쉽지 않은 만큼 오해도, 이견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뉴스에는 연일 관련한 이슈가 터져 나오고, 페미니즘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여성과 남성뿐 아니라 세대와 계층 간 서로에 대한 혐오와 오해는 갈수록 깊어져 가는 것만 같다.

일단, 페미니즘!

매주 토요일 고산면 고산미소시장 내 '널리널리 홍홍'에서는 사람들이 소리 내어 페미니즘 책을 읽는다. 모임명은 이름하여 <일단, 페미니즘>. 이 모임은 페미니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꾸려졌다. 이들의 낭독을 듣고 있으면 흡사 학창시절 문학시간이 떠오른다. 사람들은 저마다 또박또박, 각자의 호흡대로 차분히 책을 읽어나간다.

모임의 이끔이 통통(고산·34)은 "페미니즘은 제안에서 먼저, '일단' 해결해야 할 주제라 생각했다.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들과 모이기 시작했고, 2019년에는 완주문화재단의 무지개다리 사업과 연계하여 지금의 정식모임으로 확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3명이서 시작한 작은 모임은 단체채팅방 인원까지 합하면 모두 14명이 함께한다. 실제 꾸준히 읽기 모임을 지속하는 인원은 남녀 5~7명 정도. 모임은 매주 열리지만 참여자들은 각자의 시간과 사정대로 자유롭게 오간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성문화 연구모임 '도란스'의 기획 총서 4권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미투의 정치학』)과『남자들은 자꾸 날 가르치려든다』를 읽었고, 지금은『외롭지 않을 권리』를 읽고 있다.

<일단, 페미니즘>을 꾸준히 이끌어가는 힘은 바로 '낭독'이다. 낭독을 하고 있으면 페미니즘이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것 같다고도 했다. 시간을 따로 내서 책을 읽지 않아도 모임에 와서 낭독하면 되니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점이다. 함께 읽다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어 좋다.

그리고 일단 한 번 모였다 하면 시작된 수다는 좀처럼 멈추질 않는다. 보통 2~3시간 정도 진행하지만 모임 최장 기록은 장장 7시간. 그럼에도 하고 싶은 말들은 흘러넘쳐 다들 헤어지기 아쉬워 한다는 후문이다.

또한 이들은 낭독 외에도 강연, 상영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페미니즘과 만났다.

페미니즘, 알을 깨뜨리는 일

<일단, 페미니즘>을 통해 모임원들은 책과, 서로와 끊임없이 대화하며 자신의 세계를 부수고 또 부순다.

심술(고산·44)은 "도란서 총서 4권이 인상 깊은데 아마 혼자 읽었으면 못 읽었을 거다. 읽어나간 책들은 찌개백반처럼 내 삶에 뼈가 되고 살이 됐다"면서 "뼛속까지 깊이 박혀있는 습이란 것이 있는데 페미니즘을 공부하며 기존 삶의 틀을 시나브로 깨가고 있는 중이다. 깼다고는 자신할 수 없지만 과정에 있다. 막연했는데 총서를 읽으면서 어디를, 어떤 부분을 깨야할지 조금은 알 수 있었다."며 웃었다.

이미 내면화된 성차별주의적 사고를 또렷이 바라보고 뜯어고쳐야만 하는 일이 분명 쉽지만은 않다. 이는 비단 남성에게만 국한된 말은 아니다.



일단 페미니즘의 모임 멤버들이 책을 읽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홍홍(전주·41)의 경우 "페미니즘을 공부하기 전에는 할 말 없으니까 '오늘 예쁘네, 혹은 어디어디가 예쁘다'거나 '남자(여자)친구는 왜 없어?' 등의 말을 실례가 되는 줄 모르고 했던 적도 있다. 끊임없이 공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야옹(고산·40)은 곧바로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책을 추천했다.

페미니즘을 통해 어둠 속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같던 삶에 등불을 찾고, 언어를 찾고, 편안해짐을 느끼는 누군가가 있다. 반면 기존의 가치관을 깨부수고, 자기 안에서 계속해서 균열이 일어나고, 가졌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누군가도 있다. 페미니즘을 공부하다 보면 불편함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진정한 '우리'를 찾아 떠나는 여정

"무조건 좋다고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서로 싸우고 부딪혀도 화해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자 관계라고 생각해요. 나와 맞지 않는 다고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만 지내는 것은 안하고 싶어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분명 나쁜 사람은 아니고 선의는 있는 사람인데, 혹은 앞으로도 자주 봐야 할 사람이라는 이유로 일상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마주해도 그냥 슬쩍 넘어가게 되는 일이 많다.

야옹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지 않더라도 당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주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며 "억울하다거나 분노하는 개인적인 감정을 전달하지 않으면서 담백하게 대화하기 위해 연습하고 또 연습한다. 내 안의 언어를 잘 전달하고 그 사람과 더 많이, 오래 얘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일단, 페미니즘>으로 모임원들은 자신의 변화를 느낀다. 무엇이 폭력인지 알게 되었고, 각자의 언어를 찾아가고, 그 언어를 퍼트릴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누군가는 페미니즘을 통해 진짜 관계를 얻기도 했다.

아직도 페미니즘에 대해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면 2개월 차 새내기 멤버 난다(전주·50)가 전한 말처럼 일단,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집에 페미니즘 책은 쌓여있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계속 드는데 '일단'이 안 됐어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 일단 발이라도 담그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모임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좋아요. 저에게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는 귀중한 모임입니다."

※ 참고: 별명이 자연스럽게 오가서 기사에도 실명 대신 별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통통(홍미진), 홍홍(장미경), 야옹(이정은), 심술(여광범), 난다(허나겸)

완주문화재단 무지개다리 사업

완주문화재단은 2020년 무지개다리 사업을 통해 '다름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소통하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완주문화재단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무지개다리 사업은 지역주민과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예술을 통해 서로의 문화의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공동체사회에서 같이 살기 위한 방법을 찾는 사업이다.



고산 성재리
이병옥, 오영순 부부

고산 읍내에 작은 영화관이 생겼다. 일주일에 네 번 영화 상영을 하는데 그때 마다 영화를 보러온다는 노부부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작은 영화관 단골고객인 셈이다. 무조건 만나고 싶었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 사람들처럼 약속을 주고받았다. 수요일 오전에도 어김없이 영화를 보러 오실 테니 극장 앞에서 기다렸다가 간단히 인사를 했다. 취재요청을 하고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했다. 우리는 금요일 오전 11시에 극장 앞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했다. 7월의 마지막 날 텅 빈 작은 영화관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편 이병옥(73세)씨와 아내 오영순(69세)씨. 그런데 이 두 분 어디서 많이 뵌 분들 같다. 낯설지가 않다. 어디서 봤더라….

"우리 부부가 99년도부터 성재리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혹시 거기서 고시원 하지 않으셨어요?!"

일순간 서로 눈이 휘둥그레지고 저 모르시겠어요? 라는 표정과 내가 널 어떻게 아니? 라는 표정이 오고 간다. 순식간에 5년 전 어느 날로 장면이 전환 된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2015년도의 어느 날, 그때도 역시나 마감을 코앞에 두고 전전긍긍하며 취재할 사람을 찾아 떠돌 던 중이었다. 천변을 헤매다가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띄었다. 안수산으로 향하는 마을 길로 들어가니 마당이 넓은 2층 건물이 나타났










일주일에 네차례 고산읍내로 영화를 보러 가는 이병옥, 오영순 부부. 입구에 무궁화가 한창이다. 고시원 뒤로 안수산이 보인다. 부부의 봉고차 똘똘이. 똘똘하게 어디든 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부는 주민센터에서 컴퓨터를 비롯해 장구, 난타를 배우고 있다. 맨마지막 사진은 영화보러갈 때 시간 약속을 하고 만나는 앞마당이다.

는데 그곳이 성재고시원이었다. 마당 한쪽에서 주인 부부가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다. 99년부터 시작한 고시원은 13년에 영업을 마친 상태였다. 고시원을 시작하고 10년 정도는 서른다섯 개의 방에 사법고시생 부터 온갖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로 늘 꽉 차있었다고 한다.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이 생기면서 고시원을 찾은 이들도 뜸해지고 서서히 문을 닫게 된 것이다. 24시간 늘 긴장의 나날들이었다고 한다. 서른 명 넘는 사람들의 삼시세끼를 늘 정확한 시간에 차려 내는 일을 오랫동안 했으니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였다. 그래도 부부가 모두 일 놓고 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었다. 5년 전 그 당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중이었다. 반찬과 식료품을 취급하는 가게를 전주에 개업하기로 하고 한창 분주하던 시기였다. 그 와중에 갑자기 찾아온 나에게 고시원 운영했던 이야기를 상세하게 해주셨지만 끝내 신문에 싣지는 못했다. 먼저 인터뷰 요청을 하지 못한 나의 실수이기도 하다. 이런 저런 아쉬움이 많았던 만남이었는데 5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다시 만난 이병옥, 오영순 부부는 한가롭게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그 여유로움이 이번 인터뷰를 선뜻 허락한 이유이기도 한 것 같다.

"고시원 접고 조금 놀다가 아직은 놀기에는 젊다는 생각이 들어서 15년부터 한 3년은 전주에서 반찬가게를 했어요. 고산에서 날마다 출퇴근하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장사하고 몸이 지치더라고. 18년 7월 31일 딱 그만뒀는데 오늘이 딱 2년째네. 그때부터 논지가 2년 되는 거야. 이렇게 매이다가는 인생이 너무 허무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일만하고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을 부부가 같이 한 거지. 그래서 열심히 놀았어요. 어차피 놀 바에는 재밌게 놀아야 된다는 생각에 노는 데만 찾아다녀요."

이들 부부는 김제 오봉리 같은 고향 출신이다. 고향사람의 중매로 75년에 식을 올리고 전주에서 삼남매 낳아 키우며 평생 각자의 일을 쉬지 않았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 없이 스스로 일으키는 삶이었다. 이병옥 씨 말로는 부부가 호흡이 잘 맞았다고 한다.

"이 사람은 나하고 결혼하고 집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계속 부업을 했어요. 업적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은 일을 계속 저지르는 사람이야. 나는 계속 똑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고정된 수입이 있으니까.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수월하게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뒤에서 정리를 하는 스타일이고. 처음에는 일을 너무 저지르니까 감당하기 어렵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저질러놓고 보면 소화를 잘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뒤에서 도와주는 일을 한 거지."

오영순 씨는 스무 살부터 스스로 돈을 벌던 사람이었다. 손재주가 좋아 전주 남부시장 건너편에서 작은 의상실을 운영했었다고 한다. 아래로 동생이 여섯이나 되었고 막내둥이들은 의상실 하며 번 돈으로 보살피며 학교를 보냈다.

"그때 의상실이 샛별의상실이었어요. 아가씨시절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샛별은 다른 별 다 없어져도 마지막까지 남아 있잖아. 그 생각으로 이름 지은거야."

결혼하고 나서는 하숙집, 신발가게를 운영하면서 모은 돈으로 송천초등학교 앞에 건물을 지어서 문구점을 했다고 한다. 그때 문구점 이름도 샛별문구점이었다. 그때는 학생 수가 많아 장사가 잘 되었고 금리가 좋았던 시절이어서 은행에 돈을 맡겨두면 금세 돈이 불어났다고 한다. 3~4년 운영하던 문구점은 세 내주고 바로 위층에서 탁구장도 운영하셨다고 한다. 탁구장 운영하면서 종합경기장 앞에 세 얻어서 고시원도 운영하셨다고 하니, 남편 이병옥 씨의 일 저지르기 선수라는 표현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래도 80~90년 경기 좋았던 시절에 오영순 씨가 저질렀던(^^) 여러 일들 덕분에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신다.

90년대 후반 IMF 영향으로 명예퇴직 붐이 일자 이병옥 씨도 51세 이른 나이에 평생직장을 은퇴하게 되었다. 전부터 노후는 시골에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부부가 함께 했다고 한다. 은퇴하기 전에 사놓았던 성재리 땅에 고시원 건물을 짓고 99년에 완주에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영순 씨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하신다. 먹고 살기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했고 이제는 정말 신명나게 놀고 있으니 말이다. 몸 성히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한 십년정도 인 것 같다며 봉고차 '똘똘이'를 캠핑카 삼아 목적지 없이 9일 동안 강원도 여행을 한 경험담도 이야기 해주셨다.

"행복이란 것은 내 여건에서 찾아야 하는 거지 새롭게 만들긴 힘들어. 영화 보러 나오는 것도, 오전 10시에 영화시작 하니까 아침에 집안일 각자 하고 이 사람이랑 마당에서 9시 40분까지 나와라 약속을 해요. 거기서 손잡고 같이 차타고 나와서 영화를 봐요. 이런 것들이 소소하고 작은 일이지만, 행복감을 이런 것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 도전해서 뭔가를 이뤄내는 큰 성취보다는 이런 과정이 좋아요. 너무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는 거."

이병옥 씨의 말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데이트 하듯 약속을 하고 마당에서 만나 영화 보러 나오는 그들의 봉고차를 잠시 뒤따라갔다. 순간 로드무비의 한 장면이 스쳐지나간다. 영화가 별거 있나, 우리들 삶의 순간들이 모두 영화지.

글 · 사진=장미경 장미경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고산미소시장에서 공동체가 만든 제품을 파는 편집매장 홍홍을 운영한다.



⑱ 미숫가루

간편하게 즐기는 슬로푸드

미숫가루

‘바쁜 아침 간편한 한 끼’라는 말은 왠지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일터로 나가는데, 소중한 식사를 허술하게 챙긴다는 나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까지 생각하는’ 음식을 찾게 된다. 바쁘니까 간단하게,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음식은 너무 욕심이 지나친 게 아닐까 싶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음식을 먹고 있었다. 이제는 아침식사의 대명사를 넘어서 동의어가 된 미숫가루가 바로 그것이다. 조선시대부터 전란에서 병사들에게 지급했던 미숫가루는 가장 효율적으로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식량이었다. 회사, 논밭, 학교, 각자의 전쟁터로 나가기 전 시간은 아끼고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 먹는 음식으로 ‘전투식량’ 미숫가루의 계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만난 생산자는 ‘우리네 미숫가루’의 양순임 농가다. 완주로컬푸드 가공센터에서 생산자협동조합의 일원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비트, 단호박, 쑥, 현미 등의 농사를 짓는 농부다. 사계절을 농부와 함께 흙투성이에서 뒹굴던 작물이 그의 이름을 달고 사람들에게 선보인다. 처음 매장에 진열되는 순간, 누군가 이 제품을 손으로 집는 순간을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 내 자식이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걸 보는 부모의 마음과 비슷할 것이다. 고객들이 대기업에서 대량으로 작물을 수매해서 저렴하고 균질하게 만든 가공식품보다, 직접 작물을 길러낸 농부의 투박한 손길로 만들어진 제품을 더 선호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장수가 고향인 양순임 씨는 완주군 화산면에 살던 남편을 만나 완주가 제2의 고향이 됐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전주로 나가 사는 동안 15년 동안 반찬가게를 운영한 음식 전문가이자, 베테랑 주부다. 병환이 있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다시 화산으로 오면서 농사를 시작했고, 이제는 다시 사업가의 길을 가고 있다.

“직접 농사지은 쪽파를 하루 종일 다듬어서 수매하러 갔더니 10,500원을 받았어요. 장사를 그만두고 당장 농사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는데, 너무 막막했죠.”

작물을 키우는 일이 재밌었지만, 그녀는 작물보다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더 탁월한 능력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음식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완주로컬푸드 가공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재밌어서 배웠는데, 본격적으로 제품 출시를 계획하면서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도 따고, 준비를 많이 했죠.”

취미로 하는 일과 돈을 받고 팔기 위해 하는 일은 완성도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더군다나 음식과 관련한 일은 맛과 위생, 고객 트렌드 등 더 까다로운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양순임 씨는 더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다. 2018년은 완주로컬푸드 고산가공센터가 해썹(HACCP) 준비를 위한 공사로 운영되지 않았다. 한참 준비 중이던 출시 일정이 다소 늦어졌지만, 오히려 기회로 여겼다. 1년 동안 집을 연구실로 삼아 수십 가지 레시피를 개발하고 테스트했다. 연구하다가 버린 곡물만 수백키로에 달하고, 일일이 맛보고 평가를 해야 했던 가족들과 지인들은 미숫가루 소믈리에가 되고 있었다.

우리네 미숫가루는 쪄서 말리고 볶고 분쇄하는 공정을 거친다. 부재료에 따라 볶는 과정을 생략하거나, 시간을 달리하는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 미숫가루의 원재료가 되는 농작물은 주로 곡물류이긴 하지만, 상태가 늘 비슷한 것은 아니다. 보관 상태에 따라 말린 정도도 다르고, 찌고 말리고 볶는 동안 수시로 상태를 체크해줘야 한다. 우리가 맛있는 미숫가루를 먹으려면 이 상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생산자의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만드는 사람이 맛있다고 느끼는 정도까지 볶고, 가장 최적의 상태라고 판단한 비율대로 섞어서 분쇄한다. 생산자의 손





우리네 미숫가루는 현미와 검정콩을 이용한 미숫가루를 기본으로 생산하다가 비트와 단호박, 쑥 등 다른 부재료를 넣은 미숫가루를 개발했다. 한 번 쪄서 말린 미숫가루라 목넘김이 좋고 소화도 더 잘 된다.

우리네 미숫가루

- **제 품:** 비트 미숫가루, 단호박 미숫가루, 쑥&쥐눈이콩 미숫가루, 현미&검은콩 미숫가루
- **가 격:** 300g 8500원
- **구입처:** 완주로컬푸드 매장
- **구입문의:** 양순임 농가 010-5436-0733



맛과 판단력이 의외로 중요해서 곡물을 분쇄하는 방법은 똑같은 미숫가루도 맛이 미묘하게 다르다.

우리네 미숫가루는 현미와 검정콩을 이용한 미숫가루를 기본으로 생산하다가 비트와 단호박 등 다른 부재료를 넣은 미숫가루를 개발했다. 곡물뿐만 아니라 다른 채소도 손쉽게 섭취할 수 있게 하려고 연구를 시작했다. 요즘 가장 인기 품목은 쑥쥐눈이콩 미숫가루다. 직접 농사짓는 친환경 감나무 밭에서 깨끗하게 자란 쑥을 이용해 만든다. 쑥의 쌉싸름한 향이 곡물의 고소한 맛과 어우러져 한 번 먹어본 사람은 다시 찾게 되는 맛이다.

"우리 미숫가루는 더 부드럽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목넘김이 좋고 한 번 쪄서 말린 미숫가루라서 소화도 더 잘 된다고 해요."

바쁜 아침에 먹는 음식인데 재료부터 1년, 수확한 곡물로 제품을 만드는 데는 5일 이상이 소요되는 대표적인 슬로푸드다.

미숫가루를 더 맛있게 먹는 팁을 물었다. 미숫가루에 꿀이나 설탕을 타서 단맛을 낸 뒤에, 소금 한 꼬집을 넣는 것이다. 기호에 따라서는 꿀 없이 소금만 살짝 가미해도 미숫가루의 맛을 한 층 더 고소하게 만들어 준다. 요즘은 정확하게 정백당과 소금까지 첨가된 선식이나 곡물 쉐이크 등 다양한 제품으로 출시되고 있다. 간편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소분되어 판매되고, 더 고운 입자로 편리한 도구로 섞어 먹으니 더 이상 설탕과 덩어리를 씹으며 미숫가루를 마시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아무리 미숫가루가 세련되고 편리한 형태로 탈바꿈 되더라도, 어린 시절 맹물에 얼음을 띄워 국그릇에 담아 먹던 미숫가루의 맛을 따라잡지는 못할 것이다.

글 · 사진=조율 조율은 2017년 말 완주로 귀촌, 고산미소시장에서 가공품을 판매하는 상점 **율소리에**를 열었다.

매일설레

#16 뽀르뚜가는 어디에...



설레는 완주에 온 7년차 청년이다. 그림 그리고 디자인 하는 일을 한다.





지난해 7월에 결성된 '이지바이오 돼지농장 재가동을 반대하는 완주사람들'은 8월부터 천막농성, 서울상경투쟁 등의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지반사 "소송으로 옥죄도 투쟁 안 멈춘다"

업체엔 부지매각 촉구
군에는 이전명령 제안






'이지반사' 회원들이 벼룩시장 등 기금마련 사업을 벌이고 있다.



"농장 재가동은 기업의 사회윤리, 생태환경을 중시하는 시대정신 등에 비춰 합당한 일이 아니고, 관계법령에도 부합하지 못합니다. 이지반사는 이에 농장 재가동 의사를 철회해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우리는 귀사가 농장 재가동을 대신할 대안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힙니다."

- <이지바이오에 드리는 지역주민의 제안> 중에

비봉 돼지농장 재가동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업체 간 갈등이 소송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비봉면 봉산리에 위치한 해당 농장은 돼지 1만2,000두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로 10년 가까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33개 마을과 학부모회, 민간단체로 구성된 주민조직인 '이지바이오 돼지농장 재가동을 반대하는 완주사람들'(이하 이지반사)은 지난해 7월에 결성,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돼지농장 재가동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천막농성, 서울상경투쟁 등의 활동을 펼쳐왔고, 올해 1월 완주군은 해당 농장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현지법인 부여육종(주)는 불허가 처분에 불응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지난 2월 완주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지난 4월 주민들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초에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이지반사 차남호 집행위원장은 "완주군이 농장부지를 매입하거나 행정조치(이전명령)를 통해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농장 재가동에 따른 악취발생과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수질오염총량제 등으로 지역경제와 축산농민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 한만큼 완주군이 부지를 확보해 생태적으로 전용함으로써 재가동을 원천차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완주군은 언론 등을 통해 업체가 부지를 매각하겠다면 매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부여육종은 완주군의 매각제안을 거부한 상태다. 차 위원장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행정조치(이전명령)를 통해 완주군이 농장부지를 사실상 수용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봉 돼지농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자리하고 있고, 이 경우 가축분뇨법과 시행령에 따라 완주군이 축사 이전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1년 이상의 유예기간과 이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뒤따른다.

차 위원장은 "'피고보조참가' 신청을 통해 행정소송 당사자 지위를 얻는 한편 최근 회원들을 상대로 기금 마련에 나서는 등 투쟁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번 기금마련 사업에는 기대를 뛰어넘는 열띤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 여세를 몰아 업체 쪽에 농장부지 매각을 촉구하는 한편 완주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이전명령을 적극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지반사 여태권 상임대표는 "완주군에서 농장을 매입하려는 등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어 힘이 된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집회를 못하는 상황이지만, 돼지농장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

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 | unicef for every child

아동권리영화 제작워크숍



자신의 삶, 꿈, 권리… 아동이 직접 영화에 담아요

아동권리영화 제작워크숍

아동이 직접 자신의 삶, 꿈, 권리를 영화로 제작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것도 직접 아동이 감독이 되어 제작하는 일! 상상만 해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 활동을 직접 하는 곳이 있다.

지난 7월 18일 완주가족문화교육원에 아동 32명이 모였다. 아동권리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완주군청과 완주미디어센터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최고의 영상제작 전문가 6명이 아동과 함께 영상기획, 연출, 촬영 등 영상제작의 모든 과정에 참여한다. 영화 작업은 모두 5회차에 걸쳐 진행되는데, 7월 18일 아동권리 특강 및 자유토론을 시작으로 7월 25일 영화기획 및 촬영장비 사용법, 8월 1일 스토리보드 기획, 8월 8일 촬영, 9월 5일 편집 및 최종완성의 일정이다.

이번 영화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3조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를 영화로 표현해내는 활동이다. 완주군 아동친화도시 2.0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다.
제작된 모든 영화는 전 세계 아동이 참여하는 2020년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IDFA)의 The one Minutes Jr. Awards에 출품될 예정이다. 출품된 작품이 시상 후보작이 되면 아동들은 네덜란드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참여자 김준교(고산고 2) 학생은 "아동친화도시에 사는 아동은 누구나 표현할 기회, 의견을 존중받을 기회를 갖는다."며 "아동권리영화제에서 아동·청소년이 맘껏 우리의 삶, 꿈, 권리를 배우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회째 맞는 아동권리영화제는 오는 9월 19일 완주군청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7월 완주가족문화교육원 앞마당에서 영화 촬영에 한창인 아이들.

야채를 기르려고 비봉으로 이사



나카무라의
비봉일기

〈1〉 봉황새가 날다

※이번호부터 나카무라 미코의 비봉일기를 연재합니다. 한국생활 10년차 나카무라 미코는 올해 5월 한국인 남편과 비봉면에 정착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시민교류를 추진하는 단체에서 일 하며, 경천에서 채소를 기르며 다양한 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미코 씨가 농사짓는 밭.

△ 오월 모일 날씨 맑음

하늘이 불러서 천호(天呼), 높은 산(高山)에서 봉황새가 난다(飛鳳). 길 양쪽으로 논밭이 펼쳐지는 이 땅 어디를 보아 신화를 상기시키는 이런 지명을 만들었을까. 만경강(万景江)에서 천호산(天呼山)을 향해 이사 길을 가며 옛날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본다.

야채를 길러 보려고 다니던 주말농장에서 비봉에 방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살던 아파트 계약을 바로 해지해버렸다. '건강할 때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자' 우리 부부가 만든 가훈이다. 낡은 냉장고를 버리자, 아니 아깝다, 소파를 버리자, 아니 아깝다, 소소한 갈등은 있었지만 시골 생활이 힘들면 다시 아파트에 돌아오자고 약속하면서 짐을 쌌다.

밭일을 전혀 몰라서 "보라색 꽃은 가지예요."라고 하면 그렇구나, "토마토예요."라고 하면 그렇구나 하는 우리 부부의 머리는 호박 같다. 고개를 흔들면 말린 씨가 또르륵 또르륵 소리를 낼 것이다.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여하튼 주사위는 던져졌다.

오월 초인데도 아파트와 달리 비봉의 집은 쌀쌀하다. 난방을 틀고 방바닥을 따뜻하게 잤다.

△ 오월 모일 날씨 맑음

주말농장 가까이에 있는 체험관 위에 우리 방이 있다. 농장에서 점심을 함께 먹자는 전화가 왔다. 서둘러 갔더니 옆 동네 목사님 부부가 준비하신 삼겹살 자리였다. 많은 얼굴들이 마당에 모였다.

농장 주인은 짧은 소나무를 쌓고 그 위에 직접 큰 가마솥 뚜껑을 덮어 불을 붙인다.

골동품 같은 손풍로는 내가 맡았다. 웅크려 앉아 손잡이를 돌돌 돌리면 바람이 나와서 긴 관을 통해 약해진 불이 타 오른다.

사람들은 텃밭에서 따온 상추를 씻고 김치 통을 열고 마늘을 썬다.

순식간에 준비는 끝났다.

맑은 하늘 아래 초여름 산을 바라본다. 상추 두 장에 고기와 찰밥, 파, 된장을 싸서 초록 바람과 같이 한 입에 가득 넣었다. 볼이 미어지게 입에 넣는 것이 삼겹살을 먹는 예의이겠지.

고기를 굽는 담당자 손은 매우 바쁘다. 그 분에게 삼겹살을 싸서 드리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한 번 똑같이 해보았다.

왠지 마음이 간지러워 허둥지둥 사람들 뒤로 숨어버렸다.



옥수수밭 옆 풀밭 캠핑장 "글램핑 부럽지않네"

친구가족 덕분에 새로운 공간활용법 발견

7월에 접어들면서 장마가 시작됐다. 매일 비가 쏟아지니 텃밭에서 자라는 토마토, 단호박 줄기들이 풀에 가려져 생기를 잃고 시들어간다.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텃밭을 지나 아래로 흘러가면서 새로운 물길이 만들어졌다. 이제는 풀을 뽑는 것도 포기하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주말 아내의 친구 가족 두팀이 모임을 위해 완주로 내려왔다. 집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잠자리를 정하는 게 조금은 부담되었으나 괜한 걱정이었다. 나에게는 풀밭이라 여겨지는 텃밭 주변에 나무 데크를 만들어뒀는데 한 가족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 데크 위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잔다고 했다. 풀들이 무성하고 벌레와 들짐승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을 했지만 캠핑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해 더이상 말리지 않았다. 집 근처 글램핑장과 편한 숙소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도 해봤지만 나 혼자만의 걱정이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곤충을 잡고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고 고양이 밥을 주며 적응하였고 성인들은 고기를 굽고 술 한잔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에게는 그저 풀밭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캠핑장이 된 우리집의 새로운 공간과 활용법을 알게 되었다.

친구 가족 두팀이 떠나간 자리는 다시금 풀밭만 남았다. 다시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상황에서 이 장마가 끝나면 오랫동안 묵혀뒀던 텐트를 꺼내 설치하고 불을 피우며 풀밭주변에서 우리만의 캠핑을 도전해보고자 한다. 완주에 사는 행복을 하나 더 발견한 것 같다.

강민수 마을기자(한국흙건축학교 사무국장)

옻독을 낫게 해주는 까마귀밥나무



신미연의
시골생활 이야기

〈2〉 식물들의 공생관계

2018년 완주로 귀촌한 글쓴이 신미연 씨는 작은 텃밭을 일구며 제로웨이스트, 자급자족의 삶을 지향합니다.



경천에서 사계절을 몸담고 있다 보니 늘 평화로울 줄만 알았던 이곳에도 매일같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올 여름은 무지하게 덥다가도 계속해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다. 지치지 않고 내린 비로 텃밭의 토종 토마토가 무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장마로 지구촌에서 겪고 있을 여러 상황들에 실로 공감이 간다.

삼례에 살던 때와 달리 경천으로 이사와 버스를 종종 이용하는데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연두색 버스 덕분에 읍내며 내가 필요한 곳까지 닿을 수 있으니 감사할 따름이다.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이동할 수 있는 자가용과 달리 버스가 도착하기 전 보따리 한가득 들고 담소 나누시는 정겨운 할머니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이동 중 창밖으로 보이는 짙어가는 여름의 초록빛 풍경을 보고 있자면 가는 길이 짧게 느껴져 괜한 아쉬움이 들기도 한다. 마을 곳곳에 들르는 버스 덕분에 새로이 알게 된 저수지의 멋드러진 풍광은 이 노선의 묘미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사는 집이 조금 외지다 보니 정류장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데 집앞 갈림길에서 손을 흔들면 세워주시는 기사님 덕에 오늘도 버스에 몸을 싣는다.

어느 날은, 경천으로 이사온 내게 환영 인사라도 하듯 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거라 생각했는데 눈에 보일정도로 점점 심해지는 증상에 병원으로 달려갔다. 혹여나 대상포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가던 길에 만난 마을의 어르신은 나의 상태를 보시더니 단번에 풀독이라고 알려주셨다. 아니나 다를까 의사선생님도 내가 무엇과 접촉한 모양이라고 하신다. 풀이었다. 처음에는 열을 내리고 염증에 좋은 약초인 소리쟁이로 몸을 씻고 마셔도 보았지만 지속적인 간지러움을 잠재울 약이 필요해 병원에서 지어온 약을 먹고 연고를 발라주었다. 그리고 섬유질 많은 채소와 과일을 먹으며 되도록 몸을 자극하지 않으려 식이요법도 병행했다.

어느날은 문득 어떠한 풀이 뇌리를 스치는데 옆에 있던 짝꿍이 혹시 옻이 오른 게 아니냐고 해서 설마하고 검색해보니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 식물이었다. 아이쿠머니나! 옻이 오르다니. 얼마전 자연미술 프로그램을 하기위해 식물을 채취했었는데 잘 모르는 식물 잎사귀를 건드렸다가 옻이 오른 것이다. 병원약에 의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어쩌면 치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나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던 이 식물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옻은 따뜻한 성질로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기운을 돋아주며 우루시올이라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 있다. 그리고 옻나무 주변에는 까마귀밥나무라는 관목이 90%이상 자생하고 있는데 옻나무와는 공생관계인 이 나무를 옻독이 올랐을 때 달여먹으면 신기하게 잘 낫는다고 한다. 약명은 옻칠, 풀해, 나무목자를 써서 칠해목(漆解木)이라 불리며 우리 조상들이 옻이 올랐을 때에 약용해온 식물이다. 병이 있는 곳에 약이 있다는 자연의 섭리처럼 옻나무 군락지에는 옻나무와 공생하는 칠해목이 반드시 있다고 한다. 칠해목은 옻의 독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옻닭을 먹을 때 함께 넣어 먹기도 한다.

내가 접촉한 옻나무는 산에서 옮겨 심은 것이라 근처에 자라는 까마귀밥나무를 볼 수 없었지만 인터넷을 통해 칠해목을 주문해 꾸준히 마신 결과 서서히 알레르기와 가려움증이 줄어들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숲속 식물들이 자아내는 관계 속에서 자연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으며, 새롭게 만난 칠해목이 시골살이의 가정상비약초로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

완주살이 시작했어요

박화신 씨 "그림그리고 싶어서 내려왔지요"



나는야 dreamer, Doer, 존버 중!!!

새로운 페이지의 2막을 완주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 내려오게 된 이 길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막막해 미래의 복잡한 고민들에 사로잡혀있는 나에게 잠시 '쉼'이란 걸 알려준 완주의 풍경들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였다. 그렇게 이 곳 '완주'에서, 나의 인생 제 2막이 시작되었다.

지난 6년간 고통스러운 자기 검열의 시간이 필요했다. 나의 꿈에 대해 외면했고 의심도 했던 우울한 나날이었으며 고통스러웠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먼저 걸어 나간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 길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다. 그림 그리는 길을 업으로 삼는 것에 대해 '존버'의 길이라는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는다. 많이 고민하고 망설였지만 가기로 마음먹었다.

대학 2학년 재학시절부터 시작된 나의 고민은 이제 아기가 첫 걸음마를 때 듯, 드디어 한 걸음을 땠다. 최근에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예술가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알려주셨다. 나의 죽은 심장을 거침없이 뛰게 만들어준 말이었다.

1. 작가자신이 표현하는 작품에 지금껏 다른 예술가가 행하지 않았던 무언가 '새로운 것'이어야한다.
2. 작품을 대할 때 작가는 '순수'한 영혼을 담아야 한다.
3.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알아야하며 작품에 작가의 생각이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

앞으로 그런 작품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박화신

‘기나긴 장마’ 마음만 무겁네

농/촌/별/곡



차 남 호

오랜만에 논배미를 한 바퀴 둘러보고 오는 길이다. 중간물떼기(뿌리 발육을 위해 산소공급 차원에서 물을 빼고 논바닥을 말리는 일)에 들어간 뒤로는 처음 발길이니 거의 열흘 만이지 싶다.
중간물떼기 국면에서 이리 오랜만에 논배미를 둘러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매일매일 살펴보면서 토질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논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단단해질 정도로 웬만큼 산소가 공급됐다 싶으면 다시 물을 대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그럴 기회가 아예 없었다. 모내기 이후 때 맞춰 비가 내려 가뭄을 타지 않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심하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논둑이 무너져 내린 뒤에도 장마가 지루하게 이어지면서 이따금 물난리를 치러야 했다. 엊그제는 1시간 동안 강우량 1백 미리에 이르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완주라는 이름이 ‘폭우피해’와 묶여 전국방송까지 탔다. 덕분에 가까운 친지들의 걱정스런 안부전화가 줄을 이었다. 다행히 마당에 깔아놓은 자갈이 급한 물살에 휩쓸려나가는 따위의 소소한 일 빼고 이렇다 할 피해는 겪지 않았다.
논배미로 말하자면 설령 불어난 물에 벼가 잠긴다 한들 농부가 뛰어들어 해볼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그저 ‘될 대로 되라지!’ 하고 내쳐 두거나 어서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일밖에.

그렇게 조바심치며 열흘 만에 둘러본 논배미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멀쩡했다. 물살에 떠내려온 토사와 검불 따위가 덮친 곳이 몇 군데 있었지만 크게 문제될 수준은 아니다. 걱정스럽던 논둑도 더는 무너진 곳이 없는 듯하다.
문제는 논바닥. 오랜 장마의 뒤끝인지라 아직도 흥건하게 물이 고여 있다. 쩍쩍 갈라지고 물기가 사라졌어야 할 판국에. 하지만 어쩌랴. 내리는 비를 막을 길도 없고, 헤어 드라이기로 말릴 수도 없는 노릇.
그나마 못 보던 사이에 벼 포기는 훌쩍 자랐고, 새끼를 쳐서 한결 무성해졌다. 벼줄기 몇 대를 표본으로 채취해 해부를 해봤다. 이삭이 맺히는 끝마디 위에 보일 듯 말 듯 명주실 실밥처럼 생긴 유수(幼穗, 원시이삭)가 붙어 있다. 이른바 유수형성기. 몸집을 키우는 영양생장 단계를 지나 이삭을 준비하는 생식생장 단계로 들어섰다는 얘기다.

그러고 보니 벼농사를 시작하고 석 달이 흘렀다.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인 셈이다. 벼는 앞으로 막 생겨난 유수를 이삭으로 키워 올릴 것이다. 이삭이 패고, 수정을 하고, 전분을 만들어내 마침내 나락을 맺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시 한 동안 흠씬 물을 대줘야 한다. 벼는 이 물을 끌어올리고 햇빛을 받아 탄소동화작용으로 이삭을 살찌우게 된다. 이제 무엇보다 햇빛이 아쉬운 국면이다.
하지만 오늘 저녁뉴스는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따른 끔찍한 피해소식을 잇따라 내보내고 있다. 산사태로 집채가 무너지고, 도로가 끊기고, 저수지 둑이 무너져 온 마을이 잠기고 쓸려가고…. 게다가 앞으로도 비가 많이 내릴 거라는 예보를 덧붙이다.

어림셈으로도 장마가 달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심란하기만 하다. 이젠 하늘을 원망할 염치도 없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불러들인 재앙이기 때문이다. 거듭된 경고에도 욕망을 억누르지 못한 채 자연생태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불러온 인류의 자업자득.
8월로 접어든 지금까지 지독한 폭염도, 열대야도 없었던 올여름. 밤공기는 선선하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하다.

비봉 염암마을

마을소식

담배가게 하던 옛집엔 아직도 할머니가 사신다

운주면 구제리 수청마을 입구에 오래된 집이 있다. 금속기와 지붕을 얹은 집이다. 예전에는 동네 구멍가게이자 담배가게였다.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 오고가는 행인이 간혹 있는 정도다.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아 온 박동순(85)할머니.
동순 할머니는 마치 소녀같다. 지금도 손가락에 봉숭아물을 들이고 언제나 단아한 모습이다. 조급함 없이 항상 같은 자리를 묵묵히 지켜왔다. 할머니는 나이 오십 무렵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다. 남편 복 없다며 한탄하시다가도 오히려 혼자 있는 지금이 좋다고 하신다.
할머니는 새벽 4시에 하루를 시작한다. 먼저 성경책을 읽고 기도한 다음, 구석구석 청소하고 밥과 반찬을 손수 만드신다. 저번에 찾아갔을 땐 깻잎김치, 가지조림, 새우젓, 아욧국만 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오래되고 깊은 손맛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나보다.



할머니는 반찬 말고도 된장이나 김치도 많이 담가놓고 자식들이나 집에 온 손님에게 나눠주신다. 농사도 꽤 많이 지으신다. 들깨, 고추, 생강, 참깨, 파, 부추 등 골고루 소꿉놀이 하듯 여기 만지고 저기 만지고 온종일 움직이신다.
집 정리도 어쩌면 이리 잘하실까. 밥풀이 떨어져도 주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잘 되었다. 부엌은 작년까지만 해도 아궁이에 불을 때서 아랫목이 뜨끈했다. 그 솥에다가 호박죽도 끓이고 누룽지도 나왔던 기억이 남아있다.
할머니에게 혼자 있을 때면 적적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럴 시간이 어딨나. 성당가고 병원가고 밭에 가느라 바쁘고 간혹 집에 손님이 오니까 좋다.”고 하셨다.
한곳에서 오래살고 세상이 변해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오신 할머니. 곱게 지내온 모습을 보니, 쉽게 변하고 바뀌는 요즘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것 같았다. 동순 할머니는 내가 닮고 싶은 노년의 모습이다. **허진숙** 마을기자(운주면 완창마을)

완주마을이야기 완두콩
완주 CB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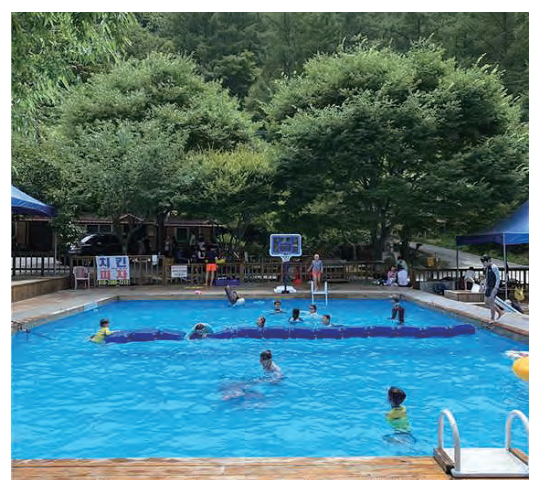
• 발 행 미디어공동체 완두콩협동조합
• 편 집 인 이용규
• 주 소 55310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854-7
• 대 표 전 화 063-291-8448 팩스 063-261-8448
• 홈 페 이 지 www.wandookong.kr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완주,라00002 구독료 월 오천원 후원 월 만원
독자기고 및 제보 toktok1942@hanmail.net

운주면 금당리 용계원(龍溪院)



이승철 향토사학자가
들려주는
완주이야기 (95)



용계원 1년(1968~9) 생활 좋았던 그 추억 나눌 분이 적어 안타깝다. 오라하는 이 없고, 막상 찾아 갈 집 적다. 무상한 세월 탓이다. 마을 분들 나 반기었고, 나 역시 고마웠음은 모두 인심 덕이었다.

6 25전쟁 후유증으로 상처가 컸지만 말 함부로 안하며, 나 역시 그 아픔 건드릴 필요 없어 내일만 열심히 했다.

떠난 지 40년! 한 해 산 나에게 공주 같은 따님 혼인 주례 부탁하는 고운 심성이 바로 용계원 인심이다. 이 인연이 노년을 행복하게 한다.

그럴수록 용계원 머릿속에 담고 사는데 마침 '충남 빨치산 전적지 답사기[임방규 빨치산 격전지 답사(9)]'에서 용계원 얘기를 보았다.

"(송세영 씨 설명) '용계원' 이곳은 1950년 12월 10일경부터 1951년 1월 17일까지 충남도당 도사령부와, 도기관들이 거점으로 삼았던 부락입니다. 일제시대 한지를 만든 공장이 있었고, 산간부락이면서도 부촌이었습니다. '1951년 1월 14일', 인민군과 중국지원군의 서울 입성을 환영하는 대대적인 기념행사가 충남도당 주최로 개최되었지요.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당일 밤 참모부 일꾼들의 경각성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고지에 부대배치를 늦게 했어요. 그 짬에 경찰 기습을 받았습니다. 용케도 신속하게 반격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습니다. 도당위원장 박우연 동지는 있지도 않은 여러 부대를 호칭하면서 '동서로 포위 공격하라!' 명령했습니다. 이에 겁먹은 경찰들이 물러남으로 희생 없이 무사했지만, 외곽 방어선인 '운주면 용평부락에 있던 압록강부대'가 같은 시간에 기습받아 약간의 피해를 입고 철수했습니다."

마을 다 타 없어진 엄청난 비극, 70년 전 이야기이다.

오늘의 용계원은 어떤가. 조만곤, 최병준, 손응배… 외 여러분 살아있다면 오라하고, 왜 자주 오지 않나 책망(?)할 찬구들인데, 나만 홀로 남아 용계원 이야기 들을 때마다 미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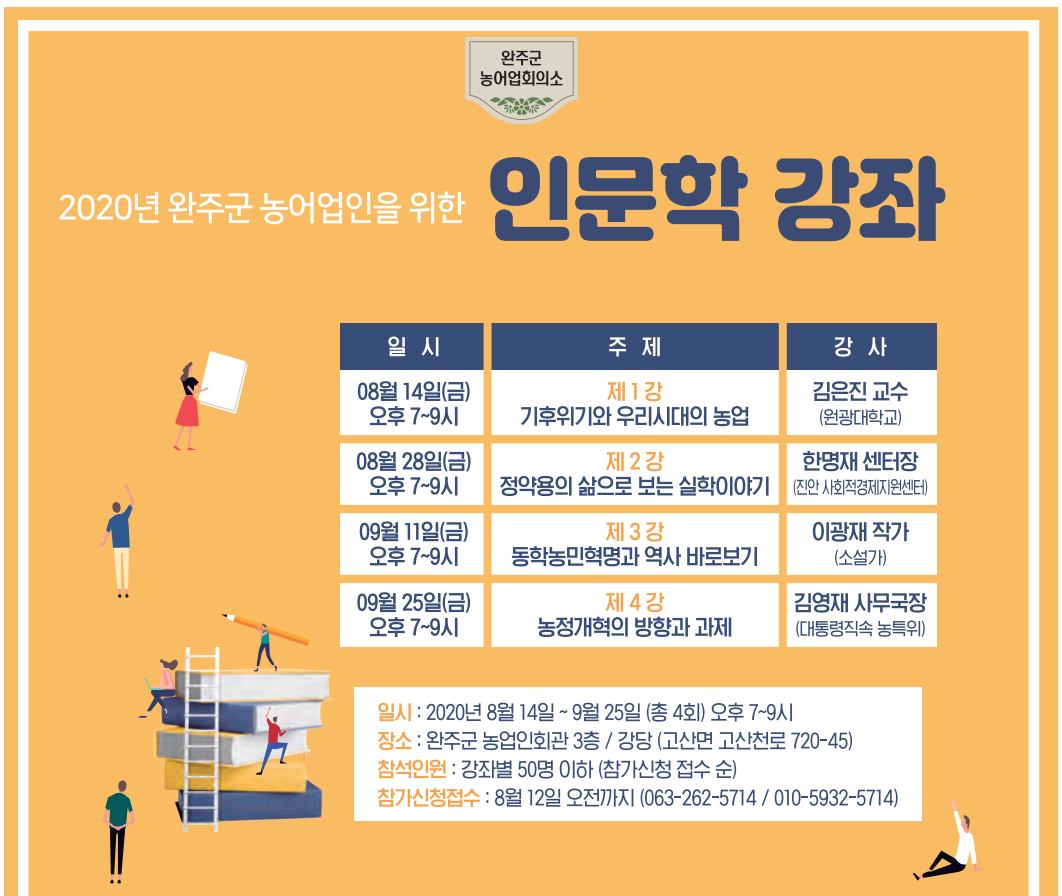
다행히 최병훈님 전화가 젊은 시절을 잊지 않게 한다. 꽃집 마당(손세항)이 학생들 운동장이었고, 손영조 선생 내외와 따님 손을정 배려가 컸다.

방앗간 집에서 이삿짐 실어 나르고, 호범진 아버지 지고 온 솔가지가 방구들을 달궈 등을 다습게 했다. 옥배 최소령, 활골 강희영 친절했으며, 삼거리-고당-피목-금당을 그 때 알았고, 천등산 꼭대기 밟은 일이 엊그제 같다.

아이들이 돌을 치우자 '물 잘 내려온다' 어른들 치하했으며, 자갈밭 큰 돌 밀어내고 고속도로라 하니 시장 다녀오던 활골 분들 좋아했다. 양귀비 몇 포기 심은 모씨 잡혀가던 모습을 봤고, 나무 베었다 곤혹 치른 이원구 씨 무사케 한 일들이 52년 전 이야기이다.

손정화는 (주)하림에서 만났는데 어디서 사는지! 교실 두 칸 화장실 하나가 용계원의 자랑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금당·고당 너무나도 많아 달라졌다.

국사편찬위史料조사위원(esc2691@naver.com)·칼럼니스트



마을소식

완주한우협동조합 국원호 이사장 취임



완주한우협동조합에 국원호(73) 이사장이 새롭게 취임했다.

국 이사장은 △비봉면회장협의회장 △비봉면새마을협의회장 △완주신협이사 △고산지소 비봉농협 이사 등을 역임했고 한우협동조합 이사와 부이사장을 거쳤다. 임기는 2022년 총회까지이다.

국 이사장은 "우리 완주한우협동조합이 지금까지 잘 해온 것만큼 앞으로도 더 열심히 나아가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심한 완주 청년 여기 여기 모여라

고산·삼례·이서 청년공간 8월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삼례와 이서의 모든 원데이클래스는 오후 2시부터 5시에 진행된다.

♬고산 – 림보책방

▼정규프로그램▼

〈모두의지구_시즌2〉
– 우리들의 지구생활이야기
–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환경챌린지와 미션
– 함께 만들어 함께 쓰는 친환경세제 워크숍
· 일시: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6:30pm

〈꼼꼼바느질〉
– 금요일 오전, 한바탕 수다 떨며 바느질
– 미싱, 뜨개질 등 원하는 손기술 무엇이든 OK
– 8월에는 시원하고 편안한 린넨반바지
· 일시: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11:00am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11:00am

〈민중의학〉
– 청년튼튼! 완주튼튼! 단디 배우는 단디스쿨
– 일상에서 틈틈이 내 몸을 살피고 돌보는 방법
–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야 찐이야~
· 일시: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7:00pm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7:00pm

〈단디스쿨_여름 액세서리〉
– 손으로 사부작사부작 핸드메이드라이프!
– 구슬, 리본, 실버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드는 나만의 액세서리
· 일시: 2020년 8월 18일 화요일 6:30pm

▼소모임▼
– 꾸러기축구(매주 월요일 저녁7시): 실력이 늘고 있다!! @고산축구장에서 혼성 풋살
– 영어로 해리포터(매주 토요일 오전11시): 원서로 읽는 해리포터 시리즈
– 일단, 페미니즘(매주 토요일 오후2시): 함께 모여 낭독하는 페미니즘 책모임
– 일상글쓰기(격주 금요일 오후7시): 각자의 속도대로, 각자의 느낌대로, 꾸준히 기록해보는 일상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00 2층
운영시간: 화~토 13:00–21:00(일~월, 공휴일 휴무)
문의: 070–4240–0088

♬삼례 – 하워드인플래닛

현재 삼례 청년공간은 새로운 위치에 공간 이전 및 리모델링 중이다. 원데이클래스는 8월중 1회 진행 예정이라고 하니 자세한 일정과 장소 안내는 아래 번호로 문의하자.

주소: 리모델링 중
문의: 010–6621–7820

♬이서 – 별빛공방

한 달에 한번 완주청년들을 위한 감성충만 취미클래스 별빛취미발전소가 돌아왔다. 만 39세 미만 완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8월 1일 나만의 미니정원을 만드는 '테라리엄' 29일에는 완주로컬푸드 꽃을 이용한 미니꽃다발 만드는 '핸드타이드 부케'가 진행된다.

주소: 완주군 이서면 양동길 26 (별빛공방)
문의: 010–5118–5066

미술관 전시가 궁금해 복합문화지구누에

7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복합문화지구누에아트홀 1·2전시실에서 청년작가발굴시리즈 '우화:羽化' – 젊은 색을 개최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역 청년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장려와 문화예술 현장의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전시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청년작가 두 팀이 각각 1,2부로 나눠 진행한다. 1부는 고지은, 김원, 김도연, 김성수, 박경덕, 박성수, 박종찬, 쑨지, 이올, 이동형, 임희성, 장지은, 정소라, 차건우, 최무용, 한주연, 홍경태 17명의 작가들이 모인 C.art 그룹전 '젊은 색'이 진행되며, 8월 11일부터 30일까지 2부 강유진, 정철휘, 설학영 등 세작가의 '일상의 포착1'이 이어진다.

주소: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완주문화재단 복합문화지구 누에
관람시간: 10: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문의: 242–3951



BOOK! BOOK! 기다렸어 도서관 이야기

【완주군립중앙도서관】

◆8월 인문독서아카데미◆

인문독서아카데미 '선인의 참 좋은 견해 : 위대한 정신, 선인에게 배우다'가 8월에도 계속된다. 11일까지 '선구자, 그 삶의 정신을 엿보다', 25일부터 '불꽃같은 삶, 항일정신'이라는 테마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중앙도서관 3층 다목적강당에서 진행된다. 한 회차 당 선착순으로 30명 모집하니 관심 있는 사람은 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아래 문의 번호로 전화접수하자.

	주제	주제도서
8.4	근대 기업의 등장과 기업인 이야기	한국 역사 속의 기업가
8.11	해방 이후 경제개발과 기업인 이야기	
	강사: 방기철	
8.25	말과 글에 담긴 민족의 정신	조선어학회 항일투쟁사
	강사: 박용규	

◆신중년 '다시 온 봄' 프로젝트◆

완주군립중앙도서관에서 신중년 특성화 프로그램 참여자를 7월 27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반드시 완주군에 주소를 둔 신중년(50세~64세 성인)이어야하며, 접수시 신분증을 지참해야하기 때문에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바리스타·파티케이터링·조리실습·푸드스타일을 배우는 푸드스타일리스트 양성과정,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및 멀티 활용 훈련 교육을 배우는 드론전문인 양성과정, 친환경 이동식 황토방 제작을 배우는 친환경건축실무자 양성과정으로 나뉘어 8월 7일부터 교육이 시작된다. 자부담해야하는 비용과 교육장소는 아래 문단을 참고하자.

》푸드스타일리스트 양성과정
: 8만원, 완주가족문화교육원
》드론전문인 양성과정
: 30만원, 우성대학교·호남항공드론 교육원
》친환경건축실무자 양성과정
: 5만원, 한국 흙건축학교

주소: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립중앙도서관 2층 사무실 평생학습팀)
문의: 290–2655

【둔산영어도서관】

둔산영어도서관 3층 수국홀에서 매주 수요일 10시 '길 위의 인문학 사임당의 후예'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각 회차마다 선착순으로 20명만 모집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문의번호로 신청하자.

	주제	주제도서
8.5	율곡의 생애와 사상	율곡 철학의 이해
	강사: 이재운	
8.12	강릉 오죽헌 &율곡기념관 탐방	鳥竹軒:율곡과 사임당
	강사: 문화해설사	
8.19	율곡이 그리워 한세상	율곡 인문학
	강사: 이병초	
8.26	21세기 여성의 롤모델 사임당	사임당
	강사: 임해리	

주소: 완주군 봉동읍 원둔산2길 16
문의: 290–2243~3866

【고산도서관 재개관 안내】

환경 개선을 위해 내부 리모델링 공사 중인 고산도서관 오는 8월 31일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다.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69–13
문의: 290–2647

완주미디어센터에서는 무슨 일이 ~ ?

◈단편영화제작 워크숍 교육생 모집◈

완주군 내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단편영화제작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교육을 통해 영화 전반에 대한 지식과 촬영 및 편집효과기술을 습득하고 팀을 구성하여 연출, 촬영, 편집을 거쳐 단편영화를 제작한다. 팀으로 운영되는 과정인 만큼 간단한 서면 심사가 있다. 신청기간은 8월 10일까지로 완주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완주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일반인 15명
영화 제작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영상 제작 경험이 있는 일반인

교육일정: *8월 20일(목) ~ 09월 25일(금),*
매주 목요일/금요일 오전 10:00~12:00, 총 14회차
10월 08일(목) 오전 오전 10:00~12:00 / 상영회, 1회차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강바람 영화제가*
진행된다고 하니 잊지 말고 꼭 참석하자.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10*
문의: *262-1895*

철쭉작은도서관 '내가 읽어줄게!' 공모전

소양면에 위치한 철쭉작은도서관에서 '내가 읽어줄게!' 공모전을 개최한다. 학생, 성인 중 해당하는 부문에 그림책 읽어주는 영상을 철쭉작은도서관 네이버 밴드에 업로드하면 끝이다. 완주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14일까지로 각 부문별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선발해 문화상품권을 전달할 예정이다.

주소: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194*
문의: *247-8866*

고용안정일자리센터 문을 열다

7월 15일 봉동읍 둔산리 근로자복지관에 위치한 완주고용안정일자리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가동했다. 일자리 센터는 고용노동부 경제·산업 종합 일자리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지키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은 전라북도, 완주군, 익산시, 김제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동차(상용차)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식품 산업과 신산업(수소 등)을 육성해 향후 5년간 1000억을 투자, 1만개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중 완주군은 3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라북도에는 사업을 총괄 수행하기 위한 고용안정사업단이 출범하였으며, 완주군을 시작으로 김제시, 익산시도 각각 고용안정 일자리 센터를 구축하게 된다. 앞으로 센터는 고용안정 패키지 사업을 수행할 거점 센터로서 중소기업 지원(컨설팅, 환경개선, 교육훈련 등)과 일자리 발굴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주소: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94*
문의: *290-2403*

치매안심센터 신축 이전 안내

구 소양면사무소에 임시 개소하여 운영하던 완주군 치매안심센터가 7월 27일부터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완주소방서 인근)로 신축 이전한다. 완주보건소 신축이전 건물 바로 뒤편에 위치해있다.



문의: 290-3187

완주국민체육센터 임시개장 안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휴관을 했던 완주국민체육센터가 임시개장을 했다는 소식이다. 답답한 몸과 마음을 수영과 운동으로 싹 날려보자! 헬스장은 무료, 수영장은 유료로 이용 가능하다. 완주군민이라면 하루 1700원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완주군민이 아니라면 2500원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	수영장	헬스장
평일	06:00-20:00	6:00-22:30
토요일	06:00-18:00	6:00-22:30
일요일	10:00-18:00	9:00-22:30

(매주 월요일, 국경일 법정공휴일 휴관)

주소: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860*
문의: *290-2635*

아직 늦지 않았어! 청년배움 지원사업

완주군에서 청년들의 자기개발비용을 일부 지급한다. 예산소진시까지 계속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니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따보는 건 어떨까. 단, 작년에 참여한 완주 청년들은 올해에 참여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한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홈페이지나 아래 문의번호로 연락하자.

지원내용: *자격증 시험 응시료, 학원수강료(자격취득 관련)에 들어간 비용 80%의 최대 15만원 지원*
접수방법: *방문접수(평일 09-18시, 대리 및 우편접수 불가)*
접수처: *완주군청 6층 사회적경제과 청년정책팀*
문의: *290-3237*

안전하게 다 물에 빠-우-져!

무더운 여름, 안전하게 물놀이하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내 하천과 계곡의 물놀이 방역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8월 23일까지 완주군에서 무료 구명조끼 대여소를 운영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도 배치된다. 또한 하천과 계곡 물놀이 지역에 대한 방역관리 차원에서 안전초소와 공용화장실, 구명장비거치대 옆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공용장비는 매일 소독하며 텐트와 돗자리 등도 2m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설치하도록 '물놀이 방역수칙 준수' 계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명조끼 배치장소
고산면 오성교, 운주면 호성골·호꼬배기 (장소 당 150여개 정도 구명조끼 비치), 그 외 물놀이 장소는 구조용 구명조끼, 구명환, 구명로프 등 비치

물놀이 관리지역
- *고산면: 남봉교, 오성교, 청수원, 성림편의점, 대아관광농원, 대아댐 밑, 창포마을 옆*
- *운주면: 산수가든, 청룡가든, 호성골, 솔밭가든, 호꼬배기, 학강수, 금고당계곡, 솔뫼농원, 옥계동*
- *동상면: 용소계곡*

문의: *290-2292~2295*

로컬푸드로 다 품다 원데이클래스

완주 로컬푸드와 로컬산물을 활용한 건강하고 즐거운 체험이 시작된다. 한 끼 식사부터 반려견 간식, 원예체험까지 로컬에서 시작된 다양한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가 왔다! 체험은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도농상생터(카페)에서 8월 19일부터 매주 수, 목요일 오후 하루 최대 8명의 인원으로 진행된다. 단, 70%이하 인원모집 일자는 체험 취소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8월 10일 오후 4시까지 받는다.

메일주소: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187 용진농협*
문의: *240-6915*
계좌: *농협 351-1110-8343-43 1회 체험 당 1만원 입금*
(개별 포장용기 지참 시 2천원 환불)

소셜굿즈 기념품 아이디어 공모전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셜굿즈 기념품 아이디어 공모전' 을 진행한다. 접수방법은 완주소셜굿즈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공모전 파일 다운로드 후 아래 메일주소로 제출하면 된다. 완주군을 대표할 수 있고 지역 특성 및 상징성을 가진 기념품으로 상품화가 바로 가능한 아이디어라면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수상자에게는 상금이 수여되고 수상작은 완주소셜굿즈센터 공식기념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메일주소: *wanjucoop@naver.com*
문의: *070-5165-4508*

완주군로컬잡(JOB)센터 임시 이전 안내

완주군로컬잡센터가 내부사정으로 봉서중학교 근처로 임시 이전하게 되었다. 완주군로컬잡센터에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아래 이전 주소를 기억해두자.



임시 이전 주소: *봉동읍 둔산3로 145번지*
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융합기술센터 2층 203,204호
문의: *262-1720~6(완주군로컬잡센터),*
261-1421~4(완주고용안정일자리센터)

완주군 YOUTV 구독 이벤트

완주군 유튜브 계정 구독, 알림설정하고 맘스터치 햄버거세트 교환권 받자!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완주군 유튜브 채널 구독과 알림설정을 한 후 완주군 유튜브 업로드된 영상 중 최애 영상 3개를 시청하고 영상을 캡처하여 완주군 SNS이벤트 게시물 댓글로 작성하면 응모 완료다. 8월 17일 각 매체를 통해 당첨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2회 완주품앗이상영회

올해의 독립영화 돌려보기

무료상영



8. 7. 금 14:00	칠곡가시나들	동상생활문화센터 063-246-0778	전체관람 / 다큐 100분
8. 13. 목 20:00	찬실이는 복도 많지	삼례책마을 문화센터 063-291-7820	전체관람 / 드라마 96분
8. 14. 금 10:00	나는 보리(&영화뒷담화)	이서문화의집 063-221-0336	전체관람 / 드라마 100분
8. 18. 화 15:00	야구소녀(&리터러시)	소양풀뿌리교육지원센터 063-247-7311	12세이상 / 드라마 105분
8. 19. 수 14:00	윤희에게(&영화뒷담화)	구이생활문화센터 063-224-2207	12세이상 / 로맨스 105분
8. 22. 토 14:00	이장(&영화뒷담화)	완주미디어센터 063-262-1898	12세이상 / 드라마 94분

주최_ 완주군 후원_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